

12/11/16

설교 제목: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5:1-11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절관주** 롬 5:2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절관주** 갈 3:4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길어봐야 100년 인데 그 중 약 80세까지 건강하게 제 정신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산다고 칩시다.

그렇진대 계산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세상의 날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남지 않은 그 귀중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비해 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일 분 일 초라도 교회에다 허비합니까?

우리네 인생에 부활해서 사는 영원한 생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남지 않은, 다시는 가져 볼 수 없는 이 시간을 악착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세도를 부리며 호의호식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칩니다.

저는 성경을 두 자로 요약하라면 기꺼이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 됩니다.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 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의 의미(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확정한 사실), 부활의 순서, 우리 몸의 부활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몇주에 걸쳐 고린도전서 15 장에 언급되어진 부활에 대해 여러분과 자세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이니 자신이 전한 말을 진실되이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속죄의 진리를 말합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과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손과 발에 못박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했고 다리도 꺾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까봐서 무거운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 입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한지 3 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던 것이다 등등의 설들을 만들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오히려 더욱 더 사실적인 사건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 27: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마 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 27: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마 27: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마 27: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 27: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 27: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 27: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로 성경과 예수 부활의 목격자인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눅 18: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눅 18: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뱀음을 당하겠으며

(눅 18:33)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눅 18: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열두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 주셨습니다.

2)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눅 24: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눅 24: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눅 24: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눅 24: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눅 24: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눅 24: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눅 24: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눅 24: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3) 500 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 여명이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 여명 중에 아직도 상당 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4)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 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까지 나타내 보이셨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잡아 가두고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도 바울의 진솔한 간증이 이어집니다.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자였던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는 바울과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같이 전파했고 이같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 전한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입니다.

1. 우리도 초대 교회 사도들이 전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똑바로 인식하고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외에 천하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3.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아무 공로없음에도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4.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낙망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망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쾌락을 쫓던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